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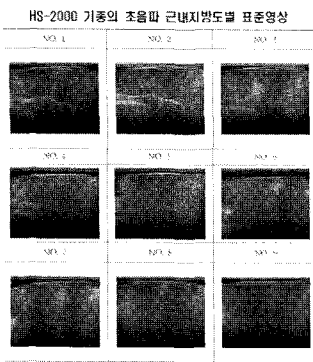
CHUKSAN News

축·산·소·식

한우

한우 육질 정확하게 판독 가능

농진청, 한우 근내지방도별 초음파 표준영상 개발



농촌진흥청은 초음파를 이용해 살아있는 한우의 육질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3개 기종에 대해 근내지방도별

표준영상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영상의 특징은 초음파 기계에서 일정한 밝기를 나타나게 해주는 조정값(Gain, Dynamic range 등)을 정해 초음파 측정 시 명확한 영상을 얻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독이 될 수 있게 했다.

조정값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초음파 사용자들이 측정 시 얻어진 영상의 밝기가 제각각이어서 육질 판독 시 오차가 발생해 초음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농촌진흥청 한우시험장 김형철 연구사는 “한우 초음

파를 측정할 때 이번에 제시된 표준영상을 이용할 경우 생체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간의 정확도를 80%이상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영상에서 근내지방도의 판정기준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등심 하단부 경계면의 반사파가 잘 나타나면 근내지방도가 낮고 나타나지 않으면 높게 판정한다.

두번째는 등심 내부에 나타나는 반사파의 형태가 강력한 반사로써 백색으로 밝게 표시되면서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보이는 것은 근내지방도가 낮고 회색으로 표시되면서 뿌옇게 나타나는 것은 높게 판정한다.

세번째로 바탕이 검은색이 많으면 근내지방도가 낮고 흰색이 많으면 높게 판정한다.

농촌진흥청 한우시험장 홍성구 장장은 “이 표준영상을 이용할 경우 초음파 측정자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한우사육 농가의 신뢰도 향상을 물론 과학 영농도 가능하다”며 “고급육 생산은 물론 육질 능력이 우수한 암소 조기 선발에도 이용해 한우개량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한우시험장은 초음파의 근내지방도별 표준영상을 지난 11월 초 서울코퍼레이션(대표 하성용)에 기술 이전했다.

라이브뉴스·도나희 기자·ai@livesnews.com·2010.11.24

양돈

FTA 대응 종돈개량 집중 투자

양돈협 종돈대책위, 방향 설정·대정부 건의사항 등 논의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8일 제 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 4차 종돈대책위원회(위원장 최희태 부회장)를 개최하고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돈



▲대한양돈협회 중돈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FTA 대책으로 중돈개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개량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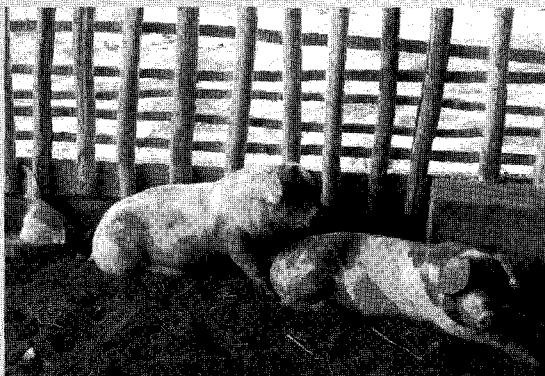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간에 개량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집중적으

로 투자 할 수 있는 개량방향 설정 및 지원 건의 사항 등을 정리한 FTA 대책을 위한 중돈개량 대책 건의서를 정리했다.

중점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첫째, 산자수 개량 둘째, 사료요구율 개량 셋째, 육질 개량 넷째, 종돈업 전문·규모·청정화 방안 다섯째, AI센타 전문·규모·청정화 방안 여섯째, 중돈개량조직 일원화 등이다.

양돈협회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골자로 한 중돈개량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양돈장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중돈개량에 의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참여위원은 ▲최희태 양돈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서재호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김인철 축산과학원 양돈과장 ▲장성훈 중돈업경영인회장 ▲김성훈 한경대 교수 ▲정영철 정P&C 대표 ▲민동수 다비육종 대표 ▲김윤식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이경록 문경파인 대표 ▲신용식 농협 종돈사업소장 ▲박주완 (주)선진 이사 ▲정관석



돼지유전자협회회장 ▲현재용 양돈협회 강원도협회의 회장 등이다.

축산경제·한정희 기자·penergy@chukkyung.co.kr·2010.11.12

「양계」

육계계약사육농 친환경축산물 생산 직불금 받는다.

양계협, 정부에 계약사육농가 제외 부당 건의... 신청대상 포함키로

올 5월 생산분 부터 적용

육계계약사육농가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란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육계농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월 31일까지 생산한 친환경안전축산물에 대해서 육계 계약사육농가들은 단순히 사육만하고 사육비를 지급받는다라는 이유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육계 사육농가들은 계열사에서 받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열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적게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 사육한 농가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된 금액을 통해 농가들이 친환경 육계사육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닭고기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노금호 기자·kumho1234@naver.com

[낙농]

서울우유 공식 트위터 계정 정식 오픈

우유 정보 · 각종 이벤트 실시간 전파

서울우유가 고객과의 빠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식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seoulmilk>)을 지난달 25일 정식 오픈 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트위터에는 오픈 하루 만에 900여명의 팔로워가 몰리는 등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우유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유에 대한 정보, 시의 적절한 건강 상식, 신제품 출시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고객 문의나 건의 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달수 브랜드 카페, 서울우유 홍보대사 등과 연계해 서울우유의 소식을 고객과 공유하고, 게릴라성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우유의 경우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고객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서울우유의 트위터를 주시하고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참여해 볼 수 있다.

서울우유 조흥원 조합장은 "SNS, 스마트 폰 등의 확

산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공식 트위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트위터를 통해 우유의 주 소비자층인 주부 외에도 청소년, 학생, 직장인 등 누구나 친근하게 서울우유의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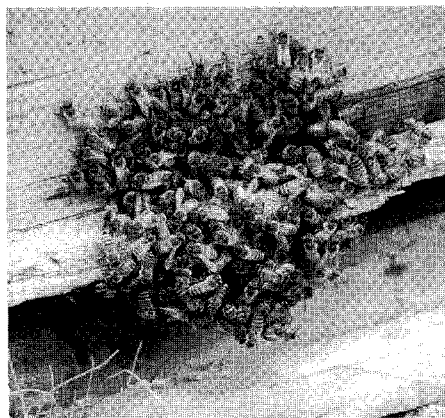
한편 서울우유는 이번 트위터 개설을 기념하고, 고객들의 활발한 트위터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주 단위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경제 · 김재민 기자 · jmkim@chukkyung.co.kr

[양봉]

'2010 세계아시아양봉대회' 23개국 7000여명 참가

양봉인들의 대축제 '2010 세계아시아양봉대회'가 지난 11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일까지 해운대구 BEXCO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 · 한국양봉학회(회장 최광렬) · 한국양봉농협(조합장 조상균)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꿀벌과 함께하는 녹색 성장'을 주제로 아시아 23개국 등 27개 국가에서 7,000여명이 참가해 정보교류와 친선을 다졌다. 지난 1992년 태국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아시아양봉대회는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호주 등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꿀벌의 다양성과 진화, 다윈의 딜레마 풀기: 일벌 불임성의 진화, 건강과 꿀벌: 꿀벌들의 이용, 꿀벌과 인간: 대단한 사회성 등을 주제로 태국, 호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기조강연을 했다. 꿀벌 생물학, 양봉기술과 도구, 꿀벌 병해충, 지역개발을 위한 양봉 등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가 진행되어 양봉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세계 양봉 전문가들과의 친선도모와 정보교류는 물론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상 및 세계적인 관광 컨벤션 도시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부산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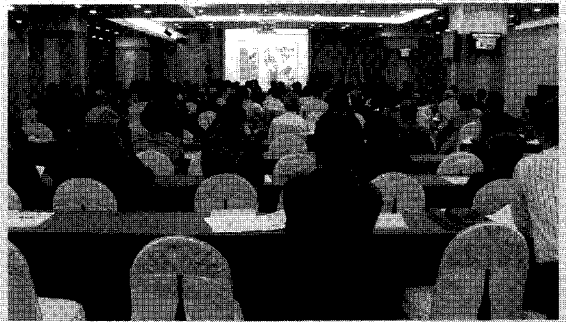
글·사진: 편집부

양록

제3차 이사회 & 2010년 양록인 교육 개최

대전 유성 소재의 레전드 호텔에서 2010년 3차 이사회와 양록인 교육이 개최됐다.

2010년 양록인 교육에 앞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는 도지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



련하기 위해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도지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해 "지부 구성 및 운영규정(안)"이 마련됐다.

제3차 이사회에 이어 열린 2010년 양록인 교육에는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록인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는 녹용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록인들을 위해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내용 위주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특히, 최근 농축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교육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본회 강준수 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교육장을 찾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회원 여러분의 열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